

동사 ‘생각하다’의 문형에 대한 고찰

신 서 인 *

I. 서론

본고는 동사 ‘생각하다’의 문형을 총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문형과 의미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각하다’를 포함한 문장은 그동안 여러 논의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지만,¹⁾ 성격이 서로 다른 문장을 놓고 그 의미가 동일하다고 전제한 후 논의를 시작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²⁾ 이 논문에서는 서로 다른 문형으로 실현되는 문장들을 구분하고 이들 간의 차이점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도록 한다. ‘생각하다’라는 동사는 여러 가지 문형을 취할 수 있는데 그 중 어떤 문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문장에 내포된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21세기 세종계획 구문분석 말뭉치를 활용하였다. 말뭉치 규모는 57만 어절이다. ‘깜짝새’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말뭉치에서 ‘생각하다’를 포함한 문장을 추출한 후 ‘생각하다’의 선행 요소를 살펴보고 어떤 문형이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알아보았다.

‘생각하다’와 관련하여 검토할 문제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 한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1) 동사 ‘생각하다’를 포함한 문장은 주어 인상, 삭제 변형, 소절, 인용문 등에 대한 논의와 조사 ‘로’, ‘를’에 대한 논의에서 예문으로 많이 다루어져 왔다.
- 2) 김지홍(1991: 43)에서도 목적어 주어 동지표 구문을 삭제 변형으로 보는 것을 반대하며 두 유형 간에 의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변형은 구조 보존을 준수할 뿐 아니라 의미 변화를 유발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동사 ‘생각하다’의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생각의 대상과 그 대상에 대하여 생각하는 내용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셋째, ‘생각하다’를 포함한 문장들의 의미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말뭉치에서 발견되는 ‘생각하다’ 구문의 실제 용례를 바탕으로 위의 문제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II. 문형에 따른 의미 구분

1. 기존 사전의 문형 정보

기존의 사전에서 동사 ‘생각하다’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문형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국어대사전>

가. 【…을】 (‘…을’ 대신에 ‘…에 대하여’가 쓰이기도 한다)

나. 【…을 …으로】 【…을 -게】 【…을 -고】 【-고】

(2) <연세한국어사전>

가. [1]이 생각하다 ([1]: 사람명사)

나. [1]이 [2]를 생각하다 ([1]: 사람명사)

다. [1]이 [2]를 [3]으로/[부] 생각하다; [1]이 [절] 생각하다 ([절]: -게 · -다고의 꼴)

(3)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

가. X=N0-이 Y=N1-을|에대해 V

나. X=N0-이 Y=S것1|S음1|Q1-을|에대해 V

다. X=N0-이 Y=S1-고 V

라. X=N0-이 Y=N1-을 Z=N2-로 V

마. X=N0-이 Y=S것1|S줄1-을 Z=N2-로 V

바. X=N0-이 Y=N1-을 ADV V

(1)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동사 ‘생각하다’가 목적어만 가지는 경우와 목적어와 목적보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구별하였다. (2)의 <연세한국어사전>에서는 동사 ‘생각하다’가 주어만 가지는 경우, 주어와 목적어를 가

지는 경우, 주어와 목적어 이외에 목적보어를 가지는 경우로 나누었다. (3)의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에서는 동사 ‘생각하다’의 문형을 보다 세분하였다. 그러나 이들 간의 계층 관계는 드러나지 않는다. (3가~나)의 Y 요소는 모두 명사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3라~마)의 Z 요소는 (3바)의 ADV로 묶일 수 있는 것이다.

2. 말뭉치에서 확인한 문형 사용 양상

57만 어절 말뭉치를 검색하였을 때 ‘생각하다’를 포함한 문장은 총 566개 가 나왔는데 말뭉치에서 주로 사용된 문형들을 보이면 <표 1>과 같다.³⁾

<표 1>에서 동사 ‘생각하다’의 문형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⁴⁾

첫째,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제4유형과 같이 인용절을 이끄는 경우이고, 그 다음은 제2유형과 같이 주어와 목적어만을 가지는 경우이다. 제4유형은 전체의 64.8%, 제2유형은 전체의 24.7%로, 이 두 가지가 동사 ‘생각하다’의 문형의 대부분인 89.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문형의 차이가 동사 ‘생각하다’의 하위 의미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는 다음 절에서 살펴볼 것이다. 한편, 제3유형과 같이 주어와 목적어 이외에 목적보어를 가지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다.

3) 이 표에서 NP는 명사구, ADV는 부사구, S는 절, Q는 의문절, adj는 형용사를 나타낸다.

4) 이 표에서 제시한 것은 실제로 사용된 용례만을 보인 것이다. 물론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면 그밖의 문형들이 더 발견될 여지가 있다. 예컨대 제3유형에서는 제2유형에서와 달리 목적어 자리에 명사구만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에 절이 오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제2유형에서와는 달리 제3유형에서는 목적어 자리에 절이 오는 경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제2유형에서는 목적어 자리에 사유 내용이 오기도 하지만, 제3유형에서는 목적어 자리에 사유 대상이 오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제4유형에서 ‘철수가 철저히 생각한다’와 같은 예를 들어볼 수도 있지만, 실제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았을 때 이런 예는 잘 발견되지 않았다.

〈표 1〉 동사 ‘생각하다’의 문형의 사용 양상

유형	문형	빈도	문형	빈도	계
1	NP1-이 생각하다	3		0	3
2	NP1-이 NP2-을 생각하다 NP1-이 NP2-을 생각하다 NP1-이 S것2-을 생각하다 NP1-이 S음2-을 생각하다 NP1-이 Q2-을 생각하다	104 16 1 5	NP1-이 NP2-에 대해 생각하다 NP1-이 NP2-에 대해 생각하다 NP1-이 S것2-에 대해 생각하다	13 1	140
3	① NP1-이 NP2-을 ADV 생각하다 NP1-이 NP2-을 NP3-로 생각하다 NP1-이 NP2-을 NP3-처럼 생각하다 NP1-이 NP2-을 NP3-같이 생각하다	16 4 1		0	56
	② NP1-이 NP2-을 ADV 생각하다 NP1-이 NP2-을 Adj-게 생각하다	14	NP1-이 NP2-에 대해 ADV 생각하다 NP1-이 NP2-에 대해 Adj-게 생각하다	4	
	③ NP1-이 NP2-을 ADV 생각하다 NP1-이 NP2-을 S3-고 생각하다	15	NP1-이 NP2-에 대해 ADV 생각하다 NP1-이 NP2-에 대해 S3-고 생각하다	2	
4	① NP1-이 ADV 생각하다 NP1-이 S것2-으로 생각하다	32		0	367
	② NP1-이 ADV 생각하다 NP1-이 S2-고 생각하다 NP1-이 Q2 생각하다 NP1-이 Q2 하고 생각하다	290 38 7		0	
	계	546	계	20	566

둘째, 제2유형과 같이 ‘생각하다’가 두 자리 서술어로 쓰일 때, 목적어가 명사구인 경우는 82.6%, 목적어가 절인 경우는 17.4%로, 목적어가 명사구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NP1-이 S-을 생각하다]는 극히 드물게 나타난다.

셋째, ‘을’ 대신 ‘에 대해’가 쓰이는 경우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다. ‘에 대해’가 쓰인 경우는 전체의 3.5%를 차지할 뿐이다. 또, ‘에 대해’가 어떤 경우이나 ‘을’ 대신 쓰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2유형과 제3유형의 일부에 대해서만 ‘에 대해’가 쓰인 경우가 발견된다.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준국어대사전>이나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에서는 ‘을’와 ‘에 대해’가 어느 경우나 교체되어 쓰일 수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는데 이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III장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넷째, [NP1-이 S-고 생각하다]와 [NP1-이 NP2-을 S-고 생각하다]의 빈도를 비교하면 전자가 훨씬 빈도가 높다. 전자는 생각하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고, 후자는 생각의 대상을 먼저 제시한 후에 그에 대한 판단 결과를 제시하는 것인데, 사유내용에 대한 인용 동사로서 ‘생각하다’가 쓰이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IV장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3. 문형과 의미의 관계

기존의 연구에서 ‘생각하다’ 구문은 여러 가지로 불려왔다. 이필영(1995), 신선경(1996) 등에서는 인용구문의 하위 부류로 다루어졌고,⁵⁾ 우순조(1995)에서는 평가구문으로 다루어졌다. 우형식(1998)에서는 인지구문이라고 하였으며, 중세국어의 대상으로 한 연구인 이현희(1994), 한재영(1996)에서는 사유구문이라고 하였다. 이들 명칭은 모두 타당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생각하다’의 여러 가지 하위 의미(sense) 중 한 가지에 주목하여 붙인 명칭들이

5) 이필영(1995: 10)에서는 인용의 정의를 ‘누군가의 말을 옮기는 것’에서 ‘누군가의 말이나 생각을 옮기는 것’으로 수정한 바 있다. 즉, 외현적 언어(구체적인 음성으로써 밖으로 표현된/표현될 말)와 내재적 언어(생각과 같이 밖으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내적으로 표현된 말)를 모두 인용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다.

〈표 1〉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사 ‘생각하다’의 문형은 크게 네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유형은 ‘생각하다’의 대상은 명시되지 않고, 주체만 명시되는 경우이다. 즉, 주어의 속성으로서 ‘생각하다’라는 특징이 기술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하위 의미는 ‘사고(思考)’라고 부를 수 있다.

제2유형은 주체와 대상이 모두 명시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특정한 대상을 머리 속에 떠올리는 것으로 이러한 하위 의미는 ‘사유(思惟)’라고 부를 수 있다.⁶⁾

제3유형은 주체와 대상 이외에 대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명시하는 경우이다. 이 때에는 목적어로 표현되는 대상에 대하여 주체가 생각한 결과를 표현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하위 의미는 ‘판단(判斷)’이라고 부를 수 있다.⁷⁾

제4유형은 대상이 명시되지 않고 주체가 생각하는 내용만 명시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동사는 절로 표현되는 내용을 옮기는 기능을 하므로 이러한 하위 의미는 ‘인용(引用)’이라고 부를 수 있다.

동사 ‘생각하다’는 이렇게 ‘사고, 사유, 판단, 인용’의 네 가지 하위 의미를 모두 가지며 이러한 의미는 문형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위의 네 가지 유형 중 어떤 문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 네 가지 하위 의미 중 하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6)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사고(思考)’는 ‘생각하고 궁리함’, ‘사유(思惟)’는 ‘대상을 두루 생각하는 일’로 풀이되어 있다.

7) 김지홍(1991)에서는 [+생각류 동사들이 [+감각절차와 [+의식작위의 복합과정을 표시하는 것을 해석한다. 이 논의에 따르면 [+생각류 동사들의 의미역 구조는 경험주(제1의미역), 대상(제2의미역), 명제(제3의미역)로 상정된다. 경험주는 생각이나 지각을 할 수 있는 주체, 대상은 생각이나 지각의 대상, 명제는 생각이나 지각의 내용을 가리킨다. 제1, 2의미역은 명사구로 실현되고, 제3의미역은 명제로 실현된다. 김지홍(1991)에서는 [+생각] 구문의 내포문이 ‘평가(간주)’의 내용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한편, ‘판단’이라는 용어는 이광호(1988)에서 사용한 바 있다.

III. 생각의 대상과 생각하는 내용의 표현

이 절에서는 생각의 대상과 그 대상에 대하여 생각하는 내용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구체적으로는 ‘에 대해’가 온전한 논항 표지로서 기능하는지, 어느 경우애나 ‘을’과 대체될 수 있는지 있는지, ‘에 대해’와 교체 가능한 ‘을’의 기능은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다.

1. NP1-이 NP2-을에 대해 생각하다

우선 목적어 자리에 명사구가 온 경우를 살펴보자. 이때의 목적어는 생각의 대상을 나타낸다.

- (4) 가. 현우는 문득 황 선생님을 생각했다.
나.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다. 눈을 감고 당시에 있었던 그 장면들을 생각해 보는 듯 했다.
- (5) 가. 누구나 아마 한두 번쯤 인간 세상의 절망, 지구의 종말에 대해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나. 과학혁명의 기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항상 묻게 되는 질문은 기술이 과학혁명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이다.
다. 만약 소회가 한번이라도 내게 눈길을 주었다면 세상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라.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생각해 둔 게 있다.

(4)는 조사 ‘을’이 쓰인 경우이고, (5)는 ‘에 대해’가 쓰인 경우이다. (4)의 경우는 ‘을’을 ‘에 대해’로 교체해도 대체로 뜻이 통한다. 그러나 (5)의 경우, ‘에 대해’로 교체하면 어색한 경우가 있다.

- (4') 가. 현우는 문득 황 선생님에 대해 생각했다.
나. 그들의 모습에 대해 생각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다. 눈을 감고 당시에 있었던 그 장면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듯 했다.

- (5) 가. 누구나 아마 한두 번쯤 인간 세상의 절망, 지구의 종말을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 나. ⁽²⁾과학혁명기의 기술을 생각하면서 항상 묻게 되는 질문은 기술이 과학혁명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이다.
- 다. ⁽²⁾만약 소화가 한번이라도 내게 눈길을 주었다면 세상을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 라. *그 점을 이미 생각해둔 게 있다.

(4)는 (4')으로 바꾸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그러나 (5'가)는 가능하지만, (5'나-다)는 상당히 어색하며, (5'라)는 아예 비문이 된다. 조사 '을'이 쓰이는 경우에는 사유 대상을 머리 속에 떠올리는 것이 '생각하다'의 주요 의미이다. (4)의 '생각하다'는 모두 '떠올리다'로 교체해도 의미가 동일하고 (5가)도 '에 대해'를 '을'로 교체하면 '생각하다'의 의미가 '떠올리다'로 축소된다. (5나) 역시 이들 문장이 가능한 경우는 '생각하다'가 '떠올리다'의 의미를 가질 때이다. 그러나 (5나)의 경우 '과학혁명기의 기술'에 대한 판단 결과를 묻는 것이라면 '에 대해'를 '을'로 교체하는 것이 어렵다. (5다)의 경우 역시 '세상이 아름답다고' 내지는 '세상이 살 만하다고'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에 대해'를 '을'로 교체하면 어색하다. (5라)는 '그 점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였는지'가 문제되는 상황이다. 여기에서 '생각해둔'의 진정한 목적어는 '그 점'이 아니고 '생각해둔'의 수식을 받는 피수식어인 '(이) 것'이다. 이 경우에는 '에 대해'를 '을'로 교체할 수 없다. '에 대해' 구성이 하나의 문법 표지로 굳어져가는 것은 사실이나 이처럼 아직은 격조사를 온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때의 '에 대해'는 생각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2. NP1-이 {S것2이음2, Q2}-을에 대해 생각하다

다음은 목적어 자리에 절이 온 경우이다. 이때의 목적어는 생각의 대상을 나타내기보다는 생각하는 내용을 나타낸다.

- (6) 가. 한마디 할 때마다 국제전화 요금 올라갈 것을 생각하니 말만 빨라질

뿐 제대로 따질 수도 없었다.

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세계가 결국은 이에 바탕을 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이 모두 과학혁명의 결과로 일어난 새로운 근대 과학의 영향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7) 더구나 우리의 새로운 전통은 우리의 바탕에 중국과 인도의 것이 어울린 고대 이래의 전통과 거기에 우리가 새로 받아들인 회랍·로마 이래의 서구적 전통이 붙은 것이라면 이것들을 한국의 도가니에 한데 넣어서 끓여 낸 주물인 우리의 새 문화는 그 주물의 원형을 찾는 것이 우리가 오늘 말하는 전통 탐구의 의의임을 생각할 때, 우리의 새로운 전통은 우리 것이면서 세계 문화 공동의 과제를 향한 것이어야 하고 낙후된 것을 극복하고 선구성으로 전환의 계기를 찾자면 세계적인 것의 우리적 형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8) 가. 프랑스 대혁명에서 나폴레옹에 이르는 그 역사의 새벽에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목숨들이 얼마나 많았던가를 생각해 보면 역사의 수레바퀴가 저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님을 실감할 수 있다.

나. 편애(편애)란 것이 한반 아이들에겐 얼마나 부당하고 불공평한 것인가를 생각할 때 미안한 마음이 안 드는 것도 아니다.

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가 어떻게 이 초대형 기구의 조종간을 조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6)~(8)의 경우에는 ‘을’을 ‘에 대해’로 교체하는 것이 어색하다. 이들 예는 ‘생각하다’의 목적어 자리에 생각하는 내용이 절로서 기술되는 경우이다. 즉, ‘에 대해’는 앞 절에서 살펴본 예에서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제외한 대상만을 언급할 때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⁸⁾

3. NP1-이 NP2-을에 대해 Adj-게 생각하다

다음으로 생각하는 내용이 부사형으로 나타난 경우를 살펴보자.

8) (8)의 의문절 뒤에 나오는 ‘을’은 생략해도 무방하다. ‘을’이 나오지 않은 경우는 제4유형과 같아진다. 이때의 ‘을’은 목적격조사보다는 보조사로서의 쓰임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다.

- (9) 가. 윤향순의 동생이라는 말 때문에 김순자 여인을 짧게만 생각해 온 남경사는 무심코 그녀에게 물었다.
 나. 그는 동물적인 욕망보다는 사람됨의 신의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껍데기에 불과한 육신(거짓나)보다는 영원한 생명인 열(참나)을 찾아야 한다고 믿었다.
 다. 나라 잃은 것을 분하게 생각한 전국의 혈기에 찬 백성들이 곳곳에서 의병으로 일어나서, 직접 무기를 들고서 왜놈들과 싸운 얘기에 이르러서는 현우는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워 오는 것을 느꼈다.
- (10) 가. 허 선생은 지금도 자신이 교사라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나. 눈이 위로 찢어진 두환의 위협적인 인상에 대해 평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선생은 하나도 없었다.
 다. 정작 집에서 살림만 하는 전업주부들은 이런 신세대식 주부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9)는 [NP1-이 NP2-을 Adj-게 생각하다]라는 문형을 가지는 경우이고, (10)은 [NP1-이 NP2-에 대해 Adj-게 생각하다]라는 문형을 가지는 경우이다. 이때에는 ‘을’과 ‘에 대해’ 간에 양방향으로 교체가 가능하다.

- (9') 가. 윤향순의 동생이라는 말 때문에 김순자 여인에 대해 짧게만 생각해 온 남경사는 무심코 그녀에게 물었다.
 나. 그는 동물적인 욕망보다는 사람됨의 신의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했고, 껍데기에 불과한 육신(거짓나)보다는 영원한 생명인 열(참나)을 찾아야 한다고 믿었다.
 다. 나라 잃은 것에 대해 분하게 생각한 전국의 혈기에 찬 백성들이 곳곳에서 의병으로 일어나서, 직접 무기를 들고서 왜놈들과 싸운 얘기에 이르러서는 현우는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워 오는 것을 느꼈다.
- (10') 가. 허 선생은 지금도 자신이 교사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나. 눈이 위로 찢어진 두환의 위협적인 인상을 평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선생은 하나도 없었다.
 다. 정작 집에서 살림만 하는 전업주부들은 이런 신세대식 주부상을 어떻게 생각할까.

‘에 대해’가 자연스럽게 쓰이는 문장은 대체로 ‘어떤 대상’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는지가 문제되는 경우이다. 즉, 평가나 판단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생각하는 내용이 ‘Adj-게’의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고,⁹⁾ 생각의 대상만이 ‘을’ 또는 ‘에 대해’로 표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의 대상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둘 사이의 교체가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4. NP1-이 NP2-을에 대해 S3-고 생각하다

다음으로 [NP1-이 NP2-을 S-고 생각하다]라는 문형에 대해 살펴보자.

- (11) 가.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스스로를 잘났다고 생각하는는 그리 어렵지 않은 법이다.
 나. 이러하면 우리는 현재 자기자신을 ‘생산자’와 ‘소비자’의 어느 하나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 (12) 가. 그는 이러한 취재길을 ‘배움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나. 그러나 많은 산업화 이전의 사회나 지금도 제1의 물결 사회로 남아 있는 일부 나라에서는 시간을 직선이 아니라 원이라고 생각했다.

(11)은 ‘S-고’에 형용사나 동사가 쓰인 경우이고, (12)는 ‘이다’가 쓰인 경우이다.

- (11') 가.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스스로에 대해 잘났다고 생각하는는 그리 어렵지 않은 법이다.
 나. 이러하면 우리는 현재 자기자신에 대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어느 하나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 (12') 가. ?그는 이러한 취재길에 대해 ‘배움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9) 김지홍(1991)에서는 사역구문과 생각구문을 구분하고 있다. 사역구문의 내포문은 [+변화의 속성을 만족시켜야 하는 반면, 생각구문의 내포문은 [-변화의 속성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지홍(1991)에서는 내포문이 상태동사일 때에는 [-다고 형태소와 [-게 형태소가 모두 나타날 수 있는 반면, 동작동사일 때에는 [-게 형태소의 실현이 저지되는데, 그 이유는 동작동사의 경우 평가의 속성이 아니라 변화의 속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나. ²그러나 많은 산업화 이전의 사회나 지금도 제1의 물결 사회로 남아 있는 일부 나라에서는 시간에 대해 직선이 아니라 원이라고 생각했다.

(11)에서는 ‘을’을 ‘에 대해’로 교체하는 것이 가능하나, (12)에서는 ‘을’을 ‘에 대해’로 교체하면 어색해진다.

다음은 [NP1-이 NP2-에 대해 S-고 생각하다]라는 문형이 쓰인 문장이다.

(13) 우리 자신도 곧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정부당국의 홍보에 대해 그것이 거짓이라고만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13)에서는 ‘에 대해’를 ‘을’로 교체하면 어색하다.

(13') *우리 자신도 곧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정부당국의 홍보를 그것이 거짓이라고만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13)에서는 S에 ‘이다’가 쓰였지만, 이때의 ‘이다’는 속성 기술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에 대해’를 ‘을’로 교체하는 것도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주절의 목적어와 동일지시적인 내포절의 주어 ‘그것이’가 명시적으로 쓰인 경우 ‘에 대해’는 자연스럽지만, 이를 ‘을’로 바꾸면 어색해진다.¹⁰⁾ (13)의 ‘에 대해’는 목적어를 표시하는 문법 표지가 아니며, 내포절의 주제를 표시하는 표지로 기능할 뿐이다.

5. NP1-이 NP2-을 NP3-{로, 처럼, 같이} 생각하다

다음으로는 [NP1-이 NP2-을 NP3-로 생각하다]와 [NP1-이 NP2-을 NP3-처럼/같이 생각하다] 문형에 대해 살펴보자.¹¹⁾

10) ‘나는 철수를 바보라고 생각한다.’는 자연스럽지만, ‘나는 철수를 그가 바보라고 생각한다.’는 어색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11) 남기심·조은(1993)에서는 이러한 구성을 소절(small clause)이라고 부르고 있다. 어휘적 차원과 형태적 차원에서 일반적인 절에 비해 빈약하지만, ‘NP2-을’과

- (14) 가. 목포를 서해안 개발의 한 전략지점으로 생각한다면, 호남선 복선화 공사는 나머지 27%를 완성해야만 제구실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나. 현실을 하나의 융합된 통일체가 아니라 많은 개별적 부분들로 이루어진 구조물로 생각해 왔던 것이다.
 다. 그러나 민이는 세호를 나이 먹은 세호로 생각하기가 싫었습니다.
- (15) 가. 교장직을 무슨 계급이나 큰 벼슬처럼 생각하는 풍토가 문제지요.
 나. 흔히 갈릴레오를 자유롭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과학자의 표본처럼 생각한다.
 다. 다시 말하면 범부란 것은 명문·이양·자생 등에 집착하여 삼독과 오욕을 자행하는 것이고, 의식과 주색을 생활의 목적처럼 생각하고 보제니 열반이니 하는 것은 도외에 두는 것이다.

(14)와 (15)에서 ‘을’을 ‘에 대해’로 바꾸어보면 수용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 (14') 가. *목포에 대해 서해안 개발의 한 전략지점으로 생각한다면, 호남선 복선화 공사는 나머지 27%를 완성해야만 제구실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나. *현실에 대해 하나의 융합된 통일체가 아니라 많은 개별적 부분들로 이루어진 구조물로 생각해 왔던 것이다.
 다. *그러나 민이는 세호에 대해 나이 먹은 세호로 생각하기가 싫었습니다.
- (15') 가. ?교장직에 대해 무슨 계급이나 큰 벼슬처럼 생각하는 풍토가 문제지요.
 나. ?흔히 갈릴레오에 대해 자유롭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과학자의 표본처럼 생각한다.
 다. ?다시 말하면 범부란 것은 명문·이양·자생 등에 집착하여 삼독과 오욕을 자행하는 것이고, 의식과 주색에 대해 생활의 목적처럼 생각하고 보제니 열반이니 하는 것은 도외에 두는 것이다.

‘NP3-로’가 내용적으로 주술관계를 이룬다는 데 주목한 해석이다. 그러나 유현경(2004)에서는 의미적 주어와 의미적 서술어를 하나의 구성소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NP3-로’는 서술어와 구조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므로 복합술어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임홍빈(2005)에서도 이러한 구성을 소절로 보는 것을 부정하고 재구조화(restructuring)로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14)의 [NP1-이 NP2-을 NP3-로 생각하다]에서 NP2는 목적어, NP3는 목적보어로, NP2와 NP3 사이에는 내용상 주술관계가 성립한다. (12)에서 동일시를 나타내는 ‘이다’ 절에서 목적어의 ‘을’을 ‘에 대해’로 바꾸는 것이 어색했었는데 (14)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5)에서는 ‘을’을 ‘에 대해’로 바꾸면 (14)처럼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다소 어색하다. 앞의 <표 1>에서도 [NP1-이 NP2-을 NP3-로 생각하다]의 문형을 가지는 용례는 발견되지만, [NP1-이 NP2-에 대해 NP3-로 생각하다]의 문형을 가지는 용례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에 대해’는 ‘을’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한다. 특정한 경우 즉, ‘을’이 생각하는 내용을 뺀 생각의 대상만을 나타낼 때에만 ‘에 대해’가 ‘을’을 대신할 수 있다. ‘에 대해’가 쓰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경우는 [NP1-이 NP2-에 대해 Adj-게 생각하다]와 [NP1-이 NP2-에 대해 S-고 생각하다] 중 S가 NP2의 속성을 기술할 때이며, 이때에는 ‘을’과 자유롭게 바꾸어 쓸 수 있다.

이처럼 동사 ‘생각하다’의 문형은 생각의 대상만 나타나는 경우와 생각의 대상과 그에 대한 판단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 차이를 보인다. 즉, 무엇을 머리 속에 떠올리는지 만을 문제삼는 경우와 머리 속에 떠올린 그 무엇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문제삼는 경우가 다르다는 것이다. 전자는 사유의 의미를, 후자는 판단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IV. 인용과 판단

‘생각하다’를 포함한 문장의 구조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들 간의 관계에 대해 주로 논의되어 왔다.

- (16) 가. 나는 철수를 바보로 생각한다.
 나. 나는 철수가 바보라고 생각한다.
 다. 나는 철수를 바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논의에서는 (16가-다)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하고, (16다)의 문장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왔다. 남기심(1973), 김영희(1985) 등에서는 내포절의 주어가 상위문의 목적으로 인상된 것으로 분석하였고, 김귀화(1994)에서는 내포절의 주어가 비논항적 위치인 내포절의 명사소 위치로 이동하였다고 하였다. 임홍빈(1979), 이광호(1988), 김지홍(1991) 등에서는 기저상에 목적어가 있는 것으로 상정하고 이것이 표면구조에서 소거된다고 설명하였다. 남기심·조은(1993)에서는 소절 구성으로 파악하였고, 유현경(2004)에서는 이 구성을 복합술어 구성으로 파악하였다.

여기서는 ‘생각하다’가 절을 취하는 경우의 문형 실현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실현 양상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1. NP1-이 S2-고 생각하다

‘생각하다’의 문형 중 [NP1-이 S2-고 생각하다]는 말뭉치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현하는 문형이다. 즉, ‘생각하다’가 주어가 생각하는 내용을 읊기는 인용동사로 쓰일 때가 많은 것이다. ‘S-고’는 ‘~다고’(176), ‘~이라고’(103) ‘~리라고’(11) 등 평서형만이 주로 쓰인다.

- (17) 가. 세호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자꾸 뱅뱅 걸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그 애는 자기 병이 다 나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가 못했어요.
 다. 그러면서 돌이는 이 세상에선 교통 순경이 제일 무섭다고 생각했습니다.
 라. 어느 동요 작가가 이렇게 말하더라만, 이 할아버지는 그 분의 말이 옳다고 생각해.
- (18) 가. 나는 죽어가는 것들을 살려내는 예술이 훌륭하고 좋은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나. 세호는 자기 아빠가 돈만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그럴수록 벼룩은 자기가 이 동물 왕국에서는, 제일가는 장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 그럴수록 민이는 우리 할아버지가 이 세상 어느 할아버지보다도 가장 위대한 할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 (19) 가. 이번 일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충격과는 엄청나리라고 생각한다.
 나. 만약 기약부에서 1등을 하면, 그때엔 아버지도 피리 부는 것을 말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그래야만 세호가 늘 자기 곁에 있는 것처럼 다정하게 느껴지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라. 설마 그것이 햇별을 볼 날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마. 그러나 모든 일이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마시오.

그밖에 내포절에 ‘-나가(11), -니까(6), -는지(4), -리지(1), -리라(11), -려니(5)’와 같은 종결어미가 오는 예들이 있다.

- (20) 가. 그땐 어느 것이 더 필요한가 생각해 봐야 해.
 나. 국내 대학이나 연구소, 나아가 외국의 전문 연구기관이나 검사기관과 제휴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 그런 세상도 있었던가 생각하니, 갑자기 서울이 그림고 또 그런 것을 배우고 듣고 하는 중학생들의 신세가 불현듯이 부러웠다.
- (21) 가. 니는 얼핏 백 원짜리 한 장을 쥐어 줄까 생각했다.
 나. 중학교라는 낯선 울타리 속에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 여간 걱정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다. 박기자는 세호가 쥐고 있는 그 돌토끼와 라이터를 어찌할까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 (22) 가.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영원히 계속되리라 생각하고 있다.
 나. 그러나 내 인생만은 좀 다른 것이라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
 다. 그는 뭔가 이것을 밑천으로 더욱 크고 안전하게 한탕 치리라 생각한다.
 라. 혹시 특수조직이란 것이 경찰의 수사 한계를 넘어서었다면 그 대응책은 한층 높은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 (23) 가. 공부를 못 했으니 무식한 사람이려니 생각하면 커다란 오해다.
 나. 그저 젊은이의 객기려니 생각했는지 목사는 한동안 그 학생의 요구를 대수롭지 않게 받아넘겼습니다.
 다. 하나뿐인 아들인데다, 설령 잘못됐다 해도 한때의 바람일 뿐 철이 들면 나아지려니 생각한 까닭이었다.

또, ‘-르까 하고(4), -느가 하고(2), -려니 하고(1)’와 같이 이들 어미 뒤에 ‘하고’가 오는 경우도 있다.

- (24) 가. 현우는 이제 죽는 길인가 하고 생각했다.
 나. 그 둘 하나 때문에 그리운 부모와도 헤어져야 하는가 하고 생각하니,
 박기자는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미웠는지 모릅니다.
- (25) 가. 돈을 벌어도 정말 민수 아빠처럼 착한 일을 하며 돈을 벌 수 없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 이것을 본 관세우 보살님은, 고양이로 둔갑하여 그 쥐를 혼내 줄까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다. 현우는 일어서 가려다가도, 한편 이는 사람 만나기가 어찌지 주저주저
 부끄러워질 것만 같아서 차라리 여기서 날 저물기를 기다릴까 하고도
생각했다.
 라. 매만 보아도 겁이 덜컥 나는데 때리면 무슨 교육이 될까하고 생각했
습니다.
- (26) 그럭저럭 뭉개다보면 잘못을 빌 기회가 오려니 하고 생각했던 조국과 승
 주에게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들 예문을 살펴보면 ‘생각하다’가 인용동사의 일반적인 쓰임과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필영(1995: 10)에서 논의했듯이 인용은 ‘누군가의 말이나 생각을 옮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생각하다’라는 동사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인용동사로 분류되어야 한다.

2. NP1-이 NP2-을 S3-고 생각하다

한편, [NP1-이 NP2-을 S3-고 생각하다]와 같이 목적어에 대한 대해 ‘S-고’ 보문이 나오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빈도가 적었다.¹²⁾ (11-12)의 예를 다시

12) 이광호(1988)에서는 목적어-주어 동지표문을 논의하는 데 있어 상위문이 판단의 의미를 가질 경우와 사역의 의미를 가질 경우를 구분하고 있다. 판단의 의미를 가지는 상위문의 동사구문 속에 내포된 문장의 동사는 [+stative]의 자질을 가져야 상위문의 목적어 명사구와 내포문의 주어 명사구 중 하나가 수의적으로 삭제된다

가져와 보자.

(27) 가.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스스로를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리 어렵지 않은 법이다.

나. 이를테면 우리는 현재 자기자신을 ‘생산자’와 ‘소비자’의 어느 하나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28) 가. 그는 이러한 취재길을 ‘배움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나. 그러나 많은 산업화 이전의 사회나 지금도 제1의 물결 사회로 남아 있는 일부 나라에서는 시간을 직선이 아니라 원이라고 생각했다.

(27~28)에서 보이는 [NP1-이 NP2-을 S3-라고 생각하다]는 상당히 특이하다. [NP1-이 NP2-을 S3-라고 생각하다]라는 문형을 사용할 때에는 [NP1-이 S2-라고 생각하다]라는 문형을 사용할 때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나타내는 효과가 있다.¹³⁾

고 하였다. 그러나 이광호(1988)에서는 판단 동사의 경우는 {-다고}가 이끄는 절만, 사역 동사의 경우는 {-게}가 이끄는 절만 예로 들고 있고 있는데, 이 둘을 균형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한편 이필영(1995: 67~71)에서는 {-다고}가 이끄는 인용문에서 상위문 주어의 의도성과 내포절의 정태성/동태성에 따라 주어의 대격화 경향이 다름을 지적하고 있다.

(i) 가. 철수는 {영이가, 영이를} 착하다고 생각했다.

나. 철수는 {영이가, [?]영이를} 웃고 있다고 생각했다.

(i가)와 같이 내포절이 정태적이면 주어의 대격화가 일어나는 데 문제가 없으나 (i나)와 같이 내포절이 동태적이면 상위문 주어의 의도성이 개입하기 어려워 주어의 대격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뭉치에서 [NP1-이 NP2-을 S-라고 생각하다] 문형을 가지는 경우는 총 15회로 아주 드물었는데, 그 중 내포문이 ‘~이라고’와 같은 계사문인 경우가 12회, 그밖의 경우가 3회였으며, ‘잘나다, 속하다, 지나지 않다’와 같이 모두 정태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내포절이 동태적이면 주어의 대격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3) 김지홍(1991)에서는 다음 두 예문의 의미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

(i) 가. 덕수가 그 꽃이 피었다고 믿는다.

위의 (16나~다)의 예를 다시 가져와보자. 두 문장의 구조적 차이는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

- (29) 가. 나는 [철수가 바보라고 생각한다.
 나. 나는 철수를 [e 바보라고 생각한다.

(29나)의 ‘철수를’은 ‘철수에 대해’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앞에서 ‘에 대해’는 생각하는 내용이 나타난 문장에서 생각하는 내용을 배제한 대상만을 언급할 때 사용된다고 하였다.¹⁴⁾ 이러한 ‘에 대해’와 교체될 수 있는 (29나)의 ‘를’ 역시 생각의 대상을 언급하는 기능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이때의 ‘를’은 ‘무엇에 대하여’ 생각하는지 알려주는 주제 표지라고 할 수 있다.¹⁵⁾

나. 덕수가 그 꽃을 피었다고 믿는다.

(i7)에서는 꽃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는 없이 덕수의 믿음만 문제 삼고 있으며 이 때에는 중립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한편 (i나)에서는 내포문의 지시 내용과 대립 혹은 반대되는 함의를 가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즉, (i나)에서는 ‘안 피어 있는 꽃’을 함의하며 이러한 문장은 주어의 잘못된 생각 내용을 지시한다고 주장한다. 본문 (27)의 예에 대해서는 이러한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하고 볼 수도 있겠으나 (28)의 예에서는 ‘잘못된 생각’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14) 안명철(1989: 391~392)에서는 다음 두 예문에서 ‘인식의 대상’과 ‘인식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 (i) 가. 그는 철수가 바보라고 여긴다.
 나. 그는 철수를 바보라고 여긴다.

(i가)에서는 인식의 대상은 명시되지 않았고 인식의 내용은 ‘철수가 바보다’이며, (i나)에서는 인식의 대상은 ‘철수’이고 인식의 내용은 ‘바보다’이며 인식 내용의 주어는 생략되어 있다고 하였다.

- 15) 이필영(1995: 80~82)에서는 ‘그는 철수를 시인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문장에서 ‘철수를’을 ‘판단대상적 의미를 가지는 대격형 주제’로 보고 있다. ‘그는 {세 사람을, 그 세 사람들} 죽었다고 생각한다’와 같은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판단대상은 판단주체가 그것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며 특정성 혹은 총칭성을 가진다.

(29가)와 (29나)의 미묘한 의미 차이는 문형의 차이에 기인한다. (29가)에 서는 비록 생각한 바이기는 하지만 ‘철수가 바보이다’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옮긴 것인 데 반해, (29나)에서는 생각의 대상으로서의 ‘철수’를 먼저 언급하고 그에 대한 판단으로서 ‘그가 바보이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29나)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새롭게 제시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V. 결론

지금까지 동사 ‘생각하다’의 문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생각하다’는 여러 가지 하위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사고, 사유, 판단, 인용이 그것인데, 동사의 의미는 문형에 따라 다르게 파악되었다.

또, 생각의 대상과 생각하는 내용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았다. 생각의 대상만을 나타낼 때에는 ‘을’과 ‘에 대해’를 자유롭게 교체하여 쓸 수 있었지만, 생각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을’을 ‘에 대해’로 대체할 수 없었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나는 철수가 바보라고 생각하다’와 ‘나는 철수를 바보라고 생각하다’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는데, 본 논의에서는 앞의 문장은 인용을 나타내고, 뒤의 문장은 판단을 나타낸다는 차이점에 주목하였다. 또, 이 두 문장에 사용되는 표지가 그 밖의 문형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봄으로써 ‘철수를’의 ‘를’이 무엇에 대하여 생각하는지 나타내는 주제 표지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동사 ‘생각하다’가 여러 가지 하위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에서 서로 다른 문형으로 실현됨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사전의 기술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며, 서로 다른 문형을 가지는 문장들에 나타나는 미묘한 의미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귀화(1994), 『국어의 격연구』, 한국문화사.
- 김영희(1985), 「주어올리기」, 〈국어학〉 14, 국어학회, pp.337~360.
- 김지홍(1991), 「동사구 보문화에서 공범주로 실현되는 동지표 논항에 대하여」, 〈석정이승욱선생회갑기념논총〉, 원일사, pp.27~68.
- 남기심(1973), 『국어 완형보문법 연구』, 탑출판사.
- 남기심·조은(1993), 「‘제한 소절’ 논항구조에 대하여」, 〈동방학지〉 8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pp.181~212.
- 박진호(1994), 「통사적 결합관계와 논항구조」, 〈국어연구〉 123, 국어연구회.
- 송복승(2004), 「국어의 소절과 ‘로’의 기능」, 〈언어학〉 12-1, 대한언어학회, pp.77~96.
- 신선경(1986), 「인용문의 구조와 유형분류」, 〈국어연구〉 73, 국어연구회.
- 안명철(1989), 「‘것’명사구와 ‘고’보문에 대하여」, 〈외국어교육연구〉 4, 대구대 [이병근·서태룡·이남순 편(1991) pp.375-394에 재록].
- 우순조(1995), 「내포문과 평가구문」, 〈국어학〉 26, 국어학회, pp.59~98.
- 우형식(1996), 『국어 타동구문 연구』, 박이정.
- 우형식(1998), 『국어 동사 구문의 분석』, 태학사.
- 유동석(1984), 「[로]의 이질성 극복을 위하여」, 〈국어학〉 13, 국어학회, pp.119~144.
- 유현경(2004), 「국어 소절(Small Clause) 구성의 복합술어 분석」, 〈국어학〉 44, 국어학회. pp.133~158.
- 이광호(1985), 「격조사 [로]의 기능 통합을 위한 시론」, 〈선오당김형기선생팔절기념국어학논총〉, 창학사[이병근·서태룡·이남순 편(1991) pp.115~145에 재록].
- 이광호(1988), 「국어의 ‘목적어-주어 동지표문’ 연구」, 〈국어학〉 17, 국어학회, pp.65~95.
- 이병근·서태룡·이남순 편(1991) 『문법 I』, 태학사.
- 이필영(1995), 『국어의 인용구문 연구』, 탑출판사.
- 이현희(1994), 『중세국어구문연구』, 신구문화사.
- 임홍빈(1974), 「‘로’와 선택의 양태화」, 〈어학연구〉 10: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pp.143~159. [임홍빈(1998) pp.379~403에 재록].

- 임홍빈(1980), 「{을/를}조사의 의미와 통사」, 〈한국학논총〉 2,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pp.91~130. [임홍빈(1998) pp.341~377에 재록].
- 임홍빈(1998), 『국어 문법의 심층 2』, 태학사.
- 임홍빈[IM, Hong Pin](2005), 『On Small Clause Hypothesis and Restructuring』, 〈우리말 연구 서른아홉 마당〉, 태학사, pp.419~432.
- 정주리(1987), 『동사, 구문, 그리고 의미』, 국학자료원.
- 한재영(1996), 『16세기 국어구문의 연구』, 신구문화사.
- 홍재성 외(1997), 『현대 한국어 동사 구문 사전』, 두산동아.